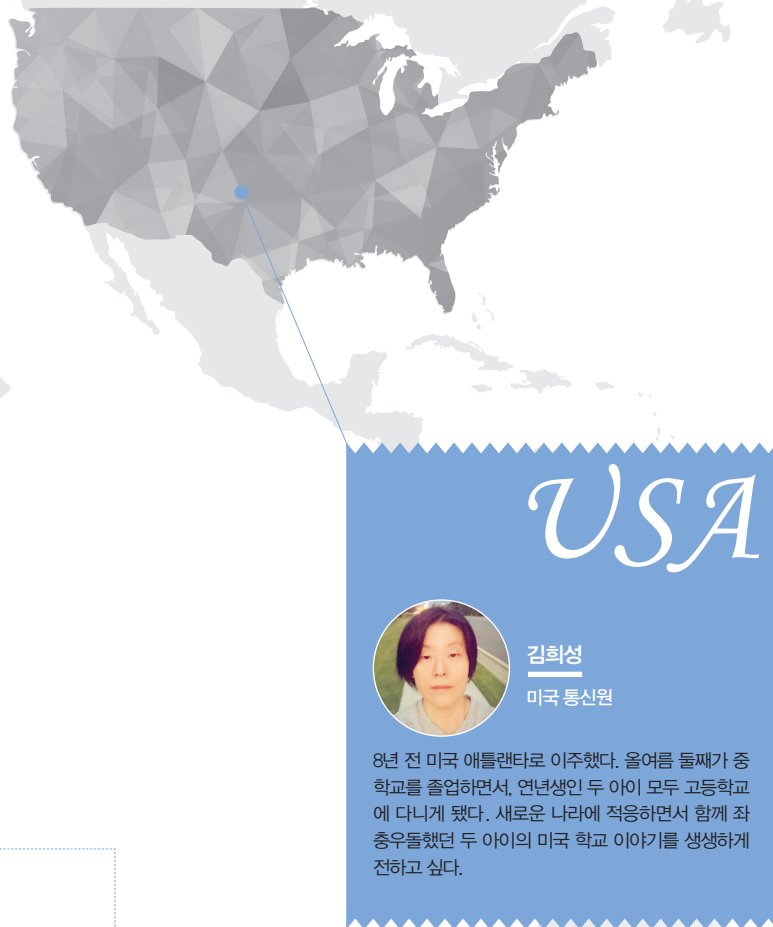




김희성

미국 통신원

8년 전 미국 애틀랜타로 이주했다. 올여름 둘째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연년생인 두 아이 모두 고등학교에 다니게 됐다.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면서 함께 좌충우돌했던 두 아이의 미국 학교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싶다.

이달의 주제
외국 학교 다니기,
빛과 그림자

자유 누릴 자율성 없다면 미국 교육은 환상에 불과



3기 학부모 통신원은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베트남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같은 듯 다른 유럽 두 나라의 공립학교, 유럽보다 자유로운 미국의 중·고교, 다양한 교육 환경을 지닌 동남아의 교육 강국 베트남의 학교·학부모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편집자**

한국 고등학생이 방학 동안 우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었다. 두 달이지만 즐겁게 사립학교를 다녔다. 좋아하는 축구를 마음껏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어가 서툴러서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미국 아이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한 반이 되자 스스럼없이 말을 붙이고 함께 운동을 했다. 아이는 쉽게 학교생활에 적응했고, 아쉬워하며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외국학교생활이다.

막대한 비용, 보호자 찾기 부담 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학생들은 대체로 유학 비자로 입국해 사립학교에 다닌다. 지명도가 높은 일부 사립학교는 유학생 입학 정원이 적거나 영어 시험을 봐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도 어려운데, 가장 큰 부담은 따로 있다. 바로 비용. 학교 웹사이트에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공지돼 있다. 애틀랜타 사립학교는 연간 2만~2만4천 달러(한화 약 2천810만 원) 정도로 파악된다. 생활비와 사교육비까지 더하면 상당한 부담이다.

따라서 유학을 결정했다면, 어디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1~2년 경험을 쌓으라고 보낸다는 학부모도 있는데, 장단점이 분명하다. 1년이라도 이곳에서 지낸다면 8월부터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학년으로 복귀하기 어렵고, 공백이 있어 학업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또, 미국 학교에 적응을 잘했다면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대학까지 지원하겠다는 생각 없이 보낸 맛보기식 단기 체류가 과연 필요한 일인지 깊게 고민해보길 권한다.

아울러 가디언, 즉 보호자 선택의 중요성을 알아둬야 한다. 가장 예민한 청소년기에 학생만 보낸다면 학교 선택이 상으로 가디언 선택이 중요하다. 자녀와 가디언의 말이 다를 경우 가디언을 믿을 수 있는 관계까지 되어야 자녀를 맡길 수 있다. 단순히 집과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아이를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미국 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가정환경은 어떤지를 잘 살펴보길 권한다.

즐거지만 할 수 없는 미국 학교생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쉽다고 한다. 고등학생이라

도 3시면 수업이 끝나고 운동이나 로보틱스, 드라마, 토론 등 다양한 클럽 활동을 하니, 밤늦게까지 공부만 해야 하는 한국에 비해서 자유로운 것은 맞다. 처음 소개한 사례는 운동이라는 매개체 때문에 미국 학교에 잘 적응한 경우지만, 사실 그 반대도 많다.

중·고등학생 시기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또래 문화가 강하다. 길으로는 친절하지만, 이미 무리가 형성돼 있어 깊은 교우 관계를 맺기 어렵다. 어렵게 결심하고 미국에 왔는데,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면 학교생활이 힘들 수 밖에 없다.

내용의 난도와 무관하게 학업을 따라가기도 어렵다. 자료를 찾아 재구성해 발표하거나 활동하는 수업이라 영어 활용력이 중요하기 때문.

유학을 온 후 내성적으로 변하거나 유혹에 빠지는 학생이 많은 이유다. 한국에 있었더라면 리더십을 발휘하고 즐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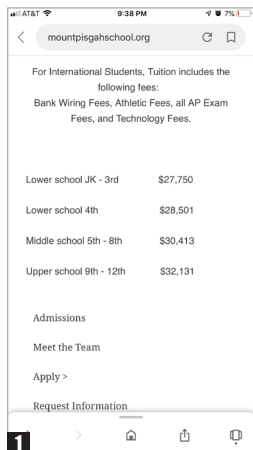
고 쾌활하게 보낼 아이가 유학을 와서 소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손해다.

따라서 유학 이유와 학습 계획을 한국에서부터 명확히 세워야 한다. 자유롭다는 것은 그만큼 예측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정기고사가 없어 각 과목 교사가 재량을 발휘해 다양하게 시험을 치르게 하니, 각자 그에 맞춰 준비하고 공부해야 한다. 화학에서 베이킹을 하거나 역사 공부를 그림을 그려 하는 식이다.

한국이나 중국·인도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도 전에 사설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시키기도 하는데, 저학년 때는 효과를 보기도 하나 상급학년이 될수록 목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한 학생들을 따라잡지 못한다. 게다가 아이비리그와 같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성적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므로 학원 시스템에 의존하는 학습 방법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뚜렷한 목표의식, 자기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유학 전 검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어린 나이의 유학생들은 보내는 부모도 떠나온 학생도 쉽지 않다. 부모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청소년 시기를 타국에서 보내기로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어렵게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무엇을 위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싶어 안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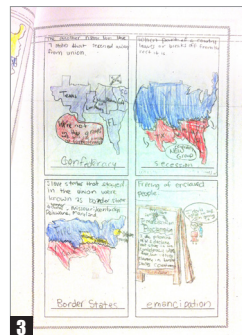
타국,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경제적 부담 등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명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 @



1 미국 사립학교는 학비 부담이 높다. 연간 비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 생활비와 사교육비까지 고려해 지원 범위를 미리 따져봐야 한다.



2 미국 학교는 클럽 등 다양한 활동을 권장하고 우대하는 분위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사진은 로보틱스 관련 동아리 활동.



3 미국 역사 관련 내용을 담은 스토리북.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므로 스스로 목표의식을 갖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